

# 조코비치 '테니스 황제' 등극

3-1로 나달 제압 윔블던 첫 우승

## 세계랭킹 1위 예약

노박 조코비치(세계랭킹 2위·세르비아)가 2011 윔블던 테니스대회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며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조코비치는 3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의 윌링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현역 최강으로 꼽히는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3-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세르비아 출신으로 첫 윔블던 텁파언에 오른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다음 주 발표될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도 1위를 예약했다.

조코비치의 윔블던 우승은 '페더러-나달' 양강 체제를 완전히 뒤엎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코비치는 '테니스 황제'로 군림해온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나달(1위·스페인)의 뒤를 이을 새목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지만 번번이 두 강호에 밀려 정상문턱에서 돌아섰다.

2004년 처음 투어 무대에 오른 조코비치는 2006년 프랑스오픈 8강에 오르고 이듬해 프랑스오픈과 윔블던



에서 연이어 준결승에 진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7년 US오픈에서 페더러에 이어 준우승하고 2008년 호주오픈 준결승에서 페더리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고대하던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신고하는 등 '차세대 테크니션'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페더러-나달'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2008년과 2009년 US오픈에서 2년 연속 페더리에 막혀 준결승을 통과하지 못했고, 2008년 프랑스오픈에서는 나달에게 고배를 머셨다. 지난해 US오픈 준결승에서 다시

페더리를 꺾으며 생애 두 번째로 메이저 결승에 올랐지만 그때도 나달에 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조코비치는 윔블던 우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에 오르게 됐다. 1973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세계랭킹이 산정되기 시작한 이후 1위 고지를 밟은 25번째 선수가 된 조코비치의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을 시즌 마지막 남은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은 조코비치가 강세를 보여온 하드 코트에서 열린다.

## 한국대학양궁 오픈 광주여대서 열린다

### 15개 대 200명 참가

광주여자대학 총장배 제13회 한국대학양궁 오픈선수권대회가 5일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개막해 8일까지 열전을 벌인다.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궁 기보배를 배출한 광주여대 양궁팀을 비롯해 호남대·순천대·한국체대·경희대 등 15개 대학 16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회는 5일 오후 4시30분 개막식에 이어 공식연습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각 대학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싱글리운드(웰리피케이션 라운드), 올림피아운드(개인전), 아카데미 라운드(단체전) 부문으로 나눠 경쟁을 벌이게 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여대(감독 김성은)는 지난 6월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진(2년)을 비롯해 조승현(4년)·김소현(2년) 등 6명의 선수들과 신구조회를 이루었다.

마운드에서는 베테랑 이상훈(18승)·김태원(16승)·정삼흡(15승)·김용수(30세이브) 등과 신인 인현배(10승)가 신구조회를 이워 철옹성을 구축했다. 타격에서는 해태에서 이적해온 한대화가 '잠실 해설가'로 거듭난데다 노찬연·박종호·김동수·김영직·박준태·최희재 등의 베테랑이 서용민(0.318, 72타점)·유지현(0.305, 15홈런)·김재현(0.289, 21홈런) 등 신예들과 신구조회를 이루었다.

특히 신인 3종사들은 '오빠부대'를 몰고 다니며 흥행에도 대성공을 이루는 기록제가 되었다. 유지현은

신인왕, 서용빈은 사이클링히트를 기록하는 등 신인 최다안타, 김재현은 20-20클럽 가입 등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김여울기자 woori@



(27) 이광환의 자율야구

1994시즌의 화두는 '이광환의 자율야구'였다.

LG 트윈스 이광환감독은 자율야구를 표방하며 상명하복식의 의사전달이 일반화되어있던 프로야구 시스템에 일대 혁명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결과는 LG 트윈스의 V2였다. 이는 LG가 첫 우승을 차지했던 1990시즌 당시 백인천감독의 '흔의 야구'와는 상반된 리더십에 따른 우승이었기에 세간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다. LG 트윈스는 '자율야구'의 근간이 된 감독과 선수들, 고참과 신참들 간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와 책임의식을 고양시켰다.

마운드에서는 베테랑 이상훈(18승)·김태원(16승)·정삼흡(15승)·김용수(30세이브) 등과 신인 인현배(10승)가 신구조회를 이워 철옹성을 구축했다. 타격에서는 해태에서 이적해온 한대화가 '잠실 해설가'로 거듭난데다 노찬연·박종호·김동수·김영직·박준태·최희재 등의 베테랑이 서용민(0.318, 72타점)·유지현(0.305, 15홈런)·김재현(0.289, 21홈런) 등 신예들과 신구조회를 이루었다.

마운드에서는 베테랑 이상훈(18승)·김태원(16승)·정삼흡(15승)·김용수(30세이브) 등과 신인 인현배(10승)가 신구조회를 이워 철옹성을 구축했다. 타격에서는 해태에서 이적해온 한대화가 '잠실 해설가'로 거듭난데다 노찬연·박종호·김동수·김영직·박준태·최희재 등의 베테랑이 서용민(0.318, 72타점)·유지현(0.305, 15홈런)·김재현(0.289, 21홈런) 등 신예들과 신구조회를 이루었다.

LG는 4월26일 선두로 나서 패속질주하며 81승45패(승률 0.643), 팀방어율 1위(3.14) 및 팀타율 1위(0.282)로 명실상부한 팀파이언이 되었다. LG가 기록한 시즌 81승은 1992년 한화, 1993년 해태가 기록한 최다승과 타이였다.

1994시즌 한국시리즈는 1위 LG 트윈스 대 태평양돌핀스의 대결로 치러졌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이상훈과 김홍집의 좌완 선발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LG가 이상훈-김용수의 황금투와 김선진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연장10회까지 141구 5피안타 2실점 완투끝에 석파한 김홍집의

타령을 누르고 귀중한 첫 판을 승리로 장식했다. 2차전은 정삼흡의 완투완봉 역투로 7-0으로 승리했다. 3차전은 태평양이 에이스 정민태를 내세우고도 초반에 얻은 4점을 종반에 다 깨먹고 4-5의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LG쪽으로 기울었다.

LG는 시리즈 고별전이 된 4차전에서 또다시 이상훈-김용수의 위력투와 서용빈의 축포, 한대화의 결승타로 태평양에 3-2의 신승을 거두며 대망의 V2를 완성했다.

김재현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7월6일(수)

▲광주청룡산국악회 전남 신안 바город(그림산, 천왕산) 7월6일(수) 6시00분 백운동로 터리풀(6시10분 교원공제회관, 6시20분 예술회관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청룡산국악회 T.011-646-3450.010-2683-6666

▲뉴일주산악회 전북 진안 연석산(925m) 7월6일(수) 6시20분 연주체육관 출발(7:30 동아방원, 7:40 상록체육관, 8:00 광주역 및 은병원 경유) \*다음카페: 뉴일주산악회 T.010-3606-8943

7월7일(목)

▲광주청룡산국악회 자리산 천왕봉, 한신계곡 7월7일(목) 7시50분 암자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광주한국산악회 자리산 7월7일(목) 7시50분 열주체육관 출발(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뉴일주산악회 T.010-615-2279

7월8일(금)

▲광주청룡산국악회 자리산 천왕봉, 한신계곡 7월8일(금)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0-615-2279

▲광주청백도연예단 페스티벌 7월8일(금) 7시30분 청송군 청송면 청송면민회관 출발(7:30 청송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페스티벌 T.010-9948-3877

▲필성산악회 완도 보길도 노화도 세연정 격자 7월8일(금) 7시30분 청송면민회관 출발(7:30 청송면민회관, 8:00 광주역 및 은병원 경유) \*다음카페: 필성산악회 T.010-9882-3070, 011-9601-5516

▲광주한국산악회 자리산 7월8일(금) 7시50분 열주체육관 출발(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뉴일주산악회 T.010-9948-3877

7월9일(토)

▲광주청룡산국악회 자리산 천왕봉, 한신계곡 7월9일(토)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0-615-2279

▲광주청백도연예단 페스티벌 7월9일(토) 7시30분 청송면민회관 출발(7:30 청송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페스티벌 T.010-9948-3877

▲광주청백도연예단 페스티벌 7월9일(토) 7시30분 청송면민회관 출발(7:30 청송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페스티벌 T.010-9948-3877

7월10일(일)

▲광주산사도연예회 전남 신안 바город(그림산, 천왕산) 7월10일(일)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산야문화 T.010-3206-7731

▲광주희망도연예회 전기산행 자리산신사 7월10일(일)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희망도연예회 T.010-9641-8845, 011-649-7867, 011-605-5311

▲e-조은산악회 충북 괴산 도평리 7월10일(일)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5441-8845, 011-649-7867, 011-605-5311

▲e-조은산악회 충북 괴산 도평리 7월10일(일)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5441-8845, 011-649-7867, 011-605-5311

7월11일(월)

▲광주산사도연예회 전남 신안 바город(그림산, 천왕산) 7월11일(월)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산야문화 T.010-9641-8845, 011-649-7867, 011-605-5311

7월12일(화)

▲광주산사도연예회 전남 신안 바город(그림산, 천왕산) 7월12일(화) 7시30분 회수, 6:00 천왕봉/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산야문화 T.010-9641-8845, 011-649-7867, 011-605-5311

7월13일(수)

▲광주청룡산국악회 경남 산청 철운산(823m) 7월13일(수) 7시50분 백운봉/관찰밭(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청룡산국악회 T.010-4913-7897

7월14일(목)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4일(목)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15일(금)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5일(금)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16일(토)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6일(토)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17일(일)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7일(일)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18일(월)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8일(월)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19일(화)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19일(화)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0-4670-9849

7월20일(수)

▲e-조은산악회 경남 거창 청천 산청 7월20일(수) 7시15분 열주체육관 출발(7:30 청천면민회관 경유)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T.01